■민족문화연구 제89호(2020.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445-476.
http://doi.org/10.17948/kcs.2020..89.445

백석의 「리스페스」 번역과 번역의 윤리

고재봉(高載奉)*

목 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번역자로서의 백석과 번역의 윤리성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40년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백석이 『만선일보』에서 게재한 키플링의 소설 「리스페스」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글이다. 백석은 키플링 소설의 원작을 입수하여, 중역이 아닌 직접 번역을 시도하였다. 그는 서문을 제외하고 거의 단 한 문장의 누락 없이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상당히 완미한 문장을 구사하려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표현의 욕망은 결국 『만선일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어떠한 발언을 하겠다는 의지의 소산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백석이 번역한 「리스페스」는 인도 처녀가 영국 남성을 구해줬다가 버림받는다는 이야기인데, 혈통과 위생 담론 등을 동원하여 차별적 관점을 그대로 노출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상의 문제에도, 이 소설은 영국인의 기만성을 폭로하기에 백석은 굳이 이 작품을 번역하여 『만선일보』에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인과 인도인의 불화를 다룬

* 인하대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졸업.

이야기는 당시 오족협화(五族協和)의 슬로건을 선전하던 『만선일보』의 논리에 이의제기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소설은 영국인의 입장에서 식민지인을 서술하였기에 식민지인이었던 백석이 이를 번역하는 작업은 상당한 괴로움을 수반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곤혹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만주국이 공히 지닌 세계의 폭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최대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였다는 점은 백석이 지닌 번역자로서의 윤리성을 가늠하게 해준다.

주제어: 백석, 러디아드 키플링, 「리스페스」, 번역, 만주국, 만선일보.

1. 서론

백석에게 있어 1939년 연말 만주행은 시인으로서 삶에 일대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다. 방랑벽이 있던 시인이 전혀 다른 세계와 조우하면서 매우 독특한 작품을 성공적으로 창작한 사례는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내용적으로 그는 「흰바람벽이있어」나, 해방 이후 발표되었지만 만주체험을 바탕으로 한 「남신의주유동박씨봉방」과 같이 내면을 진지하게 응시하면서도 쉬운 말로 서정적 감응을 발휘하는 경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그는 「북방에서」와 같이 서사시와 서정시가 절묘하게 접합이 된 이채로운 형식을 선보이는 성취를 이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작 백석은 만주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작품을 일절 만주국 내에서 발표하지 않았다.[1] 뿐만 아니라 만주에서 그의 행적 역시 공백으로 남은 부분이 많기에 여전히 그의 만주행은 연구의 영역으로 온전히 들어왔다고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백석의 만주 시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왕왕 전혀 다른 견해로 대립하곤 하였다.[2]

---

1) 당시 만주국에서 조선어로 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은 1937년에 창간한 『만선일보』가 거의 유일하였다. 백석은 『만선일보』에 박팔양의 시집을 품평한 「슬픔과 진실」(1940. 5. 9-10.)과 짤막한 산문인 「조선인과 요설」(1940. 5. 25-26.)을 발표한 것이 고작이었다.

2) 가령 대표적인 예로 1941년 『조광』에 발표한 「귀농(歸農)」을 들 수 있다. 백석이 만주국의 경제부생활을 그만두고 소작인이 되었다는 설의 근거로 이 작품을 든다. 그런데 이 작품은 해석하기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중국인 지주와 어울려 풍요한 농촌의 삶을 노래한 이 작품은, 토지를 매개로 하여 이민족간의 대립을 다룬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 근본적으로 결을 달리한다. 즉 오족협화(五族協和)의 논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셈이다. 또한 당시 만주국이 조선인들의 도시 진출을 억제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1940년 12월 24일부터 1941년 1월 9일까지『만선일보』에 게재한 백석의 두 편의 번역소설은 이 시기 백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백석은 1940년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러디어드 키플링(Joseph Rudyard Kipling, 1865-1936)의 단편소설「리스페스(Lispeth)」를 연재하였고, 다음 날인 12월 27일부터 이듬해 1월 9일까지 6회에 걸쳐 키플링의 또 다른 단편「헛새벽(False Dawn)」을 번역하여 연재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백석이 만주국 안에서 문학작품을 발표한 사례가 전무하였기에 비록 번역물이라 할지라도 이 자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백석은 만주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토마스 하디의 장편『테스』를 1940년 서울 조광사에서 이미 출판한 바 있다. 그런데 유독 키플링의 단편만 당시 만주국의 조선인 기관지 역할을 하였던『만선일보』에 게재하였다는 점은 주목을 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만주에서 창작한 그의 중요한 작품들이 1940년부터 1941년 4월 사이에 집중되다 이후 거의 뜸해졌다는 점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1940년 연말부터 이듬해 연초까지 게재한 이 번역물은 그가 해방 이전에 활동한 거의 마지막 사건들과 겹친다. 당시 백석이 만주에서 가졌던 정신적 편린을 더듬어볼 수 있는 자료로서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백석이『만선일보』에 게재한 첫 번째 번역 소설인「리스페스」를 다루려 한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두 번째 번역 작품인「헛새벽」의 경우 한 남성이 폭풍우가 치는 밤 두 자매와 소풍을 나갔다가 그만 실수로 엉뚱한 상대에게 청혼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흡사 백석이 번역한『테스』에 나오는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처럼 사람이 제아무리 노력하여도 결코 신의 의지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의식이 깔려있는 작품이다. 방민호는 이러한 운명 의식이「남신의주유동박씨봉방」에 나오는 백석 특유의 운명관과 비상한 연관을 맺는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3] 반면 첫 번째 게재 작품인「리

농민으로서의 삶을 강요하였다는 점에서도 만주국의 정책과 일정부분 일치한다는 점도 문제적이다. 하지만「조당(澡堂)에서」나「두보나 이백같이」와 같은 작품에 보여준 '중국'에 대한 친근함은 일본에 의해 괴뢰로 들어선 만주국을 부정하는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서 아예 앞의 해석과 상반될 수 있다. 참고로 백석의 소작인 생활이 거의 허구에 가깝다는 사실은 왕염려의 치밀한 실증적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왕염려,「백석의 만주시편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10, 34-39면 참조.

스페스」는 영국인 남성을 혼자 좋아하는 인도 처녀 리스페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작품의 구도 자체가 인종이라는 넘어설 수 없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정치적 의미가 다분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러한 인종과 문명에 근거한 차별적인 관점은 키플링 소설의 전형적 특징이기도 하다. 문제적 국면이 더욱 도드라질 뿐더러 이전의 『테스』 번역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리스페스」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실 백석이 키플링의 소설을 번역하였다는 사실은 그 차제만으로도 불편한 감정을 일으킨다. 『정글북』의 작가로 잘 알려진 키플링은 인도에서 태어난 영국 소설가로, 식민지 인도를 탈주술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신비한 세계로 다루었다. 문명과 야만의 도식을 작품에서 고스란히 구현하였던 까닭에 키플링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비록 영미 문학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지만 제국주의의 관점을 철저하게 관철시킨 작가라는 혐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내력이 여기에 있다. 이는 보수주의자였던 T.S. 엘리엇이 영국의 제국주의를 옹호하기 위하여 키플링의 시집을 출판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4] 그런데 이러한 키플링의 작품을 백석이 만주국의 기관지인 『만선일보』에 번역하여 실은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번역물이고 그것이 단편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료는 백석의 만주 행적과 관련하여 결코 녹록지 않은 정치적 함의를 내장할 수밖에 없다. 인종간의 문제가 자못 선명하게 드러나는 「리스페스」를 번역한 진의가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2. 본론

1) 키플링 소설과 백석 시의 소재적 유사성—'리스페스'와 '천희(千姬)'

백석이 번역한 키플링의 「리스페스」는 바로 뒤에 연재한 「헛새벽」과 함께

3) 방민호, 「백석의 『테스』 번역에 담긴 의미」, 토마스 하디, 백석 역, 『테스』, 서정시학, 2013, 433면 참조.

4) 권승혁, 「T.S. 엘리엇은…제국주의자였다」, 『T.S. 엘리엇 연구』 제30권 1호, 한국T.S.엘리엇학회, 2020, 15면 참조.

『PLAIN TALES FROM THE HILLS』에 수록된 작품이다.[5] 『테스』를 중역이나 번안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번역을 한 것처럼, 백석은 인도의 고원 지역 이야기를 다룬 이 소설집 역시 직접 입수하여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원문과 비교하였을 적에 백석의 번역이 거의 직역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두 작품 모두 제사(題詞)나 머리말에 해당하는 영탄조의 짤막한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번역의 과정에서 공히 이를 모두 배제 시켰다. 즉 하나의 작품집 안에서 같은 기준을 두고 번역하였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우선 「리스페스」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① 탄생과 성장

히말라야 산중 〈콜갈〉 지방에 리스페스라는 여자 아이가 태어난다.[리스페스는 '꽈리'라는 의미의 지역 토속어이다.] 리스페스가 태어나던 해 그녀의 집은 옥수수 농사를 망치고 만다. 그나마 의지하던 아편밭조차 곰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들은 결국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들어온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 하였다. 하지만 다음 해 콜레라가 돌면서 리스페스의 부모는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 후로 리스페스는 엘리자베스라는 세례명을 받고 교회 목사 부부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리스페스는 다른 인도 아이들과는 달리 얼굴이 희고 희랍(希臘)형의 외모를 지닌 처녀로 자라난다. 그녀는 목사 부인의 시종이자 반쯤은 곁붙이처럼 지내게 되는데 마을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 리스페스를 멀리하였다.

② 만남

그러던 어느 날 열일곱살이 된 리스페스는 처음으로 〈남쿤다〉 지방으로 소풍을 나가게 된다. 그리고 산속에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친 영국인 남자를 발견하여 그를 목사 부부의 집으로 데려온다. 이 남자에게 첫눈에 반한 리스페스는 당장 결혼을 결심한다. 영국에서 온 이 남자는 인도 여행을 와서 나비 사냥을 하다가 산중에 떨어져 다친 것인데, 목사 부인의 간호로 빠르게 몸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젊은 남녀는 무척 가깝게 지내는데, 이 남자 역시 목사 부인의 언질로 리스페스가 자신과 결혼할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5) 『고원에서 전해진 소박한 이야기(PLAIN TALES FROM THE HILLS)』는 키플링이 인도 생활을 정리하고 영국으로 건너가기 직전인 1888년 인도의 식민지 수도였던 캘커타에서 출판한 단편집이다. 여기에는 40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리스페스(Lispeth)」와 「헛새벽(False Dawn)」은 각각 첫 번째와 여섯 번째 작품에 해당한다. Rudyard Kipling, *PLAIN TALES FROM THE HILLS*, Calcutta: Thacker, Spink and Co., 1888.

된다. 다만 이 남자는 이러한 리스페스의 마음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재미삼아 리스페스와 시간을 보낸다.

③ 배신과 가출

그리고 결국 영국인 남자는 몸이 회복되자마자 자신의 약혼자가 있는 영국으로 떠나고 만다. 이때 그는 리스페스가 자신을 놔주지 않고 고집을 부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영국에서 부모의 허락을 받은 뒤 그녀와 결혼을 하러 다시 인도로 돌아오겠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 말에 속은 리스페스는 날마다 남자를 기다리지만 석달이 지나 남자의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목사 부인을 통해 알게 된다. 리스페스는 자신이 남자와 목사 부인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집을 뛰쳐나간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이 입는 더러운 옷으로 갈아입고 돌아와, "리스페스는 이제 죽었다"고 선언한다. 목사 부인은 이를 두고 리스페스가 결국 이교도이기에 변덕스러운 마음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탓하였다.

④ 여생

리스페스는 자신의 부족으로 돌아가, 다른 부족 사람들처럼 여자에게 매질을 하는 나무꾼과 결혼을 한다. 이후 그녀는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점차 잃어간다. 그녀는 영어를 마음대로 구사하면서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곤 하였다. 하지만 이미 초라한 노파가 되어버린 그녀를 보고 아무도 아름다운 리스페스를 떠올리는 사람은 없었다.

이상이 백석이 번역한 「리스페스」의 줄거리이다. 우선 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당시 백석이 번역에 있어서 일정한 관심사를 가지고 작품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백석은 1940년 9월에 토마스 하디의 『테스』를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테스』를 쓴 토마스 하디는 고향인 시골 웨섹스를 떠나 런던에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은 고향의 모습을 외부자의 시선으로 묘사하였는데, 유린당하는 테스의 운명을 통해 변해가는 시골의 사회상을 드러내려 하였다. 귀족의 성을 지닌 테스가 파멸을 맞이하는 과정은 시골이 일종의 내부식민지이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가 결국은 내부착취로 이어진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6] 그런데 키플링의 「리스페스」도 하디의 소설과 일정부분 유사한 점이 있다.

6) 레이먼드 윌리엄스, 이현석 역, 『시골과 도시』, 나남, 2013, 384-389면 참조.

첫 번째로 테스가 클레어를 순진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리스페스도 영국 남성의 말만 믿고 그를 기다리는 순진함을 보여준다. 다만 착취당하는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테스의 운명이 더욱 가혹하고 비극적이지만, 리스페스의 경우 식민지와 인종차별의 문제가 깔려 있어 정치적 측면에서 더욱 예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작가의 성격 역시 유사한데, 하디와 키플링 모두 이중적 성격으로 말마암아 소설을 창작하였다는 점이다. 하디는 런던을 경험한 뒤 고향의 문제를 일종의 외부자적 시선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관찰자이자 참여자라는 이중성을 갖는다. 반면 키플링은 영국인임에도 인도에서 태어났다는 태생적 문제로 일종의 이중국적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성은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뒤에 만주국으로 이주를 하였던 백석의 생애와도 포개어진다. 특히 겉으로는 이등국민의 지위를 지녔음에도 일본에 의해 정치적으로 배제당하고, 중국인들에게는 일본인에 준하는 유사 침략자의 낙인이 찍혔던 만주국 내 조선인의 사정은 백석으로 하여금 '경계'의 문제를 예민하게 감수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성격을 지녔을 법한 작가들임에도 이들이 백석의 눈에 포착되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라 보기 힘들다. 철저히 만주라는 실존적 환경에서 맞닥뜨린 문제의식이 백석의 번역 작업을 추동하였으리라는 점은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기실 이미 백석은 그의 작품을 통해 이러한 실존의 문제를 여성의 수난사로 포커스를 맞추어 다룬 바 있었기에『테스』나「리스페스」의 번역은 평소 그가 지닌 관심의 자연스러운 발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여승」이나「팔원」에 등장하는 아낙이나 소녀는 식민지 통치의 하중을 최말단에서 견뎌내야 했던 소수자의 전형 바로 그것이었다. 그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작품은「리스페스」의 주인공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 네날엔 통제사(統制使)가 있었다는 낡은 항구(港口)의 처녀들에겐 녯날이 가지 않은 천희(千姬)라는 이름이 많다
> 미역오리같이 말라서 굴껍지처럼 말없이 사랑하다 죽는다는
> 이 천희(千姬)의 하나를 나는 어늬 오랜 객주(客主)집의 생선 가시가 있는 마루방에서 만났다

저문 유월(六月)의 바닷가에선 조개도 울을 저녁 소라방등이 불그레한
마당에 김냄새 나는 비가 나렸다

—「통영(統營)」[7]

이 작품은 과거 왜적을 막기 위해 이순신이 통제사로 있었던 통영의 역사를 슬쩍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 빛이 바래 퇴락한 '낡은 항구'의 모습을 짤막한 한 행에서 예리하게 대비시킨다.[8] 굳이 국권의 상실이나 식민지 수탈을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녯날이 가지 않은 천희라는 이름이 많다"라는 말 안에 이 지역에 담긴 저간의 사정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즉 천희라는 이름은 항구가 퇴락하는 과정에서 이 고장에 남게 된 여성들의 일반명사인 셈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굴껍질처럼 말없이 사랑하다 죽는다"고 하였으니, 이들은 말을 할 수 없는 소수자이고, 동시에 '천희'라는 일반명사로 불려야 했던 이름 없는 자들인 셈이다. 까닭에 백석은 객주집에서 만난 처녀를 '천희'라고 하지 않고 "천희의 하나"라고 말한 것이다. 작품 말미에 저녁 무렵 지루한 장맛비가 내리는 장면은 밤새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천희의 눈물과 오버랩 되면서 기다림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첫 행을 역사적 사실로 시작하여, 항구에 유독 많은 처녀들의 기구한 사연을 이야기하고, 뒤이어 자신이 만나 특정한 여성[9]의 개인적 슬픔에 대해 언급한다. 즉 이러한 형식을 통해 역사에 의해 배태된 문제가 개인

---

7) 백석, 「통영(統營)」, 『사슴』, 1936.

8) 그런데 백석은 「통영」이라는 같은 제목의 시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구(舊)마산' 항구의 모습은 쓸쓸하지 않고 오히려 풍요롭기 그지없다. 백석, 「통영」, 『조선일보』, 1936. 1. 23. 다만 '일본말'을 잘하는 '황하장사'를 언급하는데, 황하장사란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잡화점에 해당한다. 즉 이 항구의 흥성거림에는 일본인들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까닭에 백석은 시의 말미에 굳이 "녯장수 모신 낡은 사당의 돌층계에 주저앉어서 울 듯 울 듯 한산도 바다에 뱃사공이 되어가며"라는 행을 삽입하였을 것이다. 결국 위의 작품에 나오는 "낡은 항구"라는 말에는 실제적으로 생활이 퇴락한 것이 아니라, 과거 왜군을 물리치던 그 위용은 사라진 채 이방인이 주도하는 상황이 주는 쓸쓸함의 의미가 담겨있다. 같은 제목의 두 작품이 각각 서두와 말미에 굳이 이순신과 관련된 역사성을 삽입한 것은 이러한 연유로 보아야할 것이다. 『조선일보』에 실은 「통영」에 대한 해석은 곽효환, 「백석 기행 시편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8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08, 136-138면 참조.

9) 『조선일보』에 발표한 「통영」에는 "마산 객주집의 어린 딸", 명정(明井)골에 사는 "난(蘭)"이라는 여성으로 되어 있다.

에게 전이되는 과정과, 결국 이러한 사회적 하중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소수자에게 가혹한 무게로 전가된다는 진실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그런데 이렇게 항구에서 남성을 기다리는 모습은 리스페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그녀가 훗날 영국 남성과 목사 부인에게 기만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리스페스는 죽었다"고 선언하는 장면은 '수많은 천희들'로 살아야했던 이름 없는 여성들의 모습과도 닮아있다. 무엇보다 이 두 작품은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매우 닮아있다. 남성과의 짧은 사랑 뒤에 처녀로 살다가 말라 죽는 천희와, 단 며칠의 사랑을 평생 '야만스러운' 부족의 삶과 맞바꾸는 리스페스의 태도가 일치하는 것이다. 매우 짧은 순간을 평생의 시간으로 치환시키는 방식은 시적(詩的) 시간관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리스페스」는 인생의 한 단면을 통해 진실을 말하는 단편소설의 규율에 잘 맞는 작품이며[10] 정서를 환기시키는 방식이 상당히 시적인 작품인 셈이다. 무엇보다 조선의 어느 지역에나 하나씩은 있을 법한 망부석 설화나, 이와 유사한 「통영」의 '천희'처럼 기다리는 인고의 여성상은 당시 『만선일보』를 읽는 조선인 독자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접해본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백석의 번역이 값을 한다. 키플링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통상의 조선인 독자는 인도인 처녀 리스페스의 처지에 더욱 감정 이입을 하였을 것이다. 백석이 『테스』 이후 「리스페스」를 번역한 데에는 그의 시적 경향과 소수자로서의 여성의 삶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신문을 읽는 독자들에 대한 고려라는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였을 공산이 다분하다.

---

10) 이러한 측면에서 이효석 역시 에드가 엘런 포의 「검은 고양이」와 함께 키플링의 「리스페스」를 단편소설의 모범적 사례로 거론한 바 있다. 그는 포의 말을 빌려 치밀한 구성을 통해 "만인의 가슴 위에 최상의 만족감을 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포가 단편소설을 그림에 빗대었다는 점인데, 즉 순간을 영원한 현재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는 시적 시간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포의 「검은 고양이」에서 결말이 주는 충격과, 「리스페스」의 급격하게 빨리 진행되는 결말과 노파가 된 리스페스의 모습이 주는 인상적 여운은 이러한 측면에서 유사하다. 그래서 이효석은 "현대에 이르러 포우의 뒤를 이은 작가는 키플링이 었으며, 「검은 고양이」의 혈통을 잇는 작품은 「리스페스」와 「혼처(婚妻)」였다."라고 키플링을 고평한 것이었다. 이효석, 「단편소설」, 『조광』, 1938. 8.

2) 백석의 「리스페스」에 나타난 번역 양상

그렇다면 실제로 백석이 번역한 「리스페스」는 번역작품으로서 어떠한 가치를 지닐까. 우선 그의 번역은 『테스』의 그것과 유사하면서도 일정부분 차이 나는 점들이 있다. 무엇보다 두 작품은 장편과 단편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므로 장르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번역의 성격이 달라진다. 백석이 하디의 『테스』를 번역할 때에는 장편소설임에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야기를 속도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과감한 생략을 가하였다. 다소 지루한 묘사나 당시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 등을 삭제해버린 것이다.[11] 하지만 키플링의 「리스페스」는 단출한 내용을 치밀한 문장들로 구성해놓았다. 즉 한 문장이라도 더하거나 빼버리면 나중에 '리스페스'가 늙고 초라한 노파가 되어버리는 장면이 젊고 아름다운 시절과 대비되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까닭에 백석은 「리스페스」를 거의 직역에 가깝게 모든 문장들을 번역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도 번역가로서 백석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이 작품의 서두를 살펴보면 이를 단박에 확인할 수 있다.

> 그는 「히말라야」 산중의 두멧사람 「쏘누」와 그 마누라 「짜데이」와의 딸이엇다. 어느 해는 그들의 옥수수 농사가 글러젓는데 또 「콜」「갈」쪽 「썻렛즈」 골짝이 바로 우에 잇는 다 못한 기인 아편 밧는 양귀비 꽃바테 곰이 두 마리나 나려서 밤을 나고 갓다. 이러케 되어 다음 철에는 그들은 예수교도가 되고 이리하야 그들은 그 어린 것을 세례를 밧기려고 전도회로 달여갓다.[12][밑줄: 인용자]

> SHE was the daughter of Sonoo, a Hill-man of the Himalayas, and Jadeh his wife. One year their maize failed, and two bears spent the night in their only opium poppy-field just above the Sutlej Valley on the Kotgarh side; so, next season, they turned Christian, and brought their baby to the Mission to be baptized.[13][밑줄: 인용자]

---

11) 최동호, 「백석의 1940년 『테스』 번역본에 대한 비교 검토」, 『한국학연구』 제47호,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3, 57-58면 참조.
12) 백석, 「리스페스」, 『만선일보』, 1940. 12. 24.
13) Rudyard Kipling, Op. cit., p.1.

작품의 첫 도입 부분을 보면 백석이 원문을 상당히 충실하게 번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용 부분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백석이 단지 직역만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그는 'field'라는 단어를 단순히 아편 '밭'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기인 - (아편 받는 양귀비꽃)밭"이라고 해석하였다. 여기서 백석이 "긴-"이라는 말을 덧붙인 까닭은 이 작품집이 인도의 고원지역을 배경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산지에 붙어있는 아편밭을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형용사를 첨가하여 "field"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충한 것이다. 또한 "only"라는 말은, 본디 이 부부가 옥수수 농사를 본업으로 살고, 일종의 부업으로 산지에서 '겨우, 고작' 아편을 채취하는 소용으로 밭을 조금 가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석은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only'라는 단어를 '불과(不過)'의 순우리말 표현인 "다 못한"이라고 번역하였다. 여기에는 우리말에 충실하면서도 단순히 이해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독특한 미감을 살리려 한 창작자로서의 의식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상의 특징은 "spent"라는 동사를 번역하는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단순히 "곰 두 마리가 밤을 '보냈다'"라고 해석을 해도 충분한 문장을 백석은 "곰이 두 마리나 나려서 밤을 나고 갓다"라고 번역하였다. 산지에 출몰하는 곰이 주는 위압감을 표현하기 위해,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나" 내려왔다고 양태적 표현을 덧댄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단순히 곰이 밤을 지낸 것이 아니라, 출몰하였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나려- (밤을) 나고 갓다"라고 하여 동사 'spent'의 의미를 풍부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이 문장은 41년에 발표한「국수」[14]의 다음 부분을 연상시킨다.

> 이것은 곰의 잔등에 업혀서 길여났다는 먼 녯적 큰마니가 / 또 그 짚등색이에 서서 재채기를 하면 산 넘엣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 아바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
> —「국수」中

14) 백석,「국수」,『문장』, 1941. 4.

마을 사람들이 겨울에 해 먹는 국수를 길한 음식으로 상정하여 흡사 '국수의 신'이 마을로 내려오는 장면을 백석은 위의 시행처럼 표현하였다. 그런데 키플링의 경우 인도의 광막한 자연을 배경으로 세계를 신비스럽게 표현하는데 능통하였던 바, 그 신비한 분위기를 백석은 "곰이 나려 밤을 나고 갔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단순히 밤 사이에 곰이 오갔다는 사실과는 사뭇 다르게 시적이면서도 설화적 분위기를 문장 안에 삽입한 것이다. 까닭에 "-골짝이 바로 우에 잇는 다 못한 기인 아편 밧는 양귀비 꼿바테 곰이 두 마리나 나려서 밤을 나고 갓다."라는 세심하면서 미감이 살아있는 문장이 하나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백석의 번역은 그가 번역자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지 암시한다. 우선 백석은 원문에 충실하되 읽는 사람이 낯선 문화로부터 오는 이질감이 덜 하도록 의미를 친절히 보충하려 하였다.[15] 이는 앞서 아편밭(opium poppy-field)을 번역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으니, 백석은 번역을 단순히 독자에게 외국의 작품을 소개하거나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자신만의 '표현'을 구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이다. 그가 'spent'나 'only'라는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 들인 공은 단순히 이해의 측면을 넘어선 것이다. 오히려 백석은 '이해'만큼이나 '표현'을 중시하였기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자를 위한 세심한 번역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이는 번역자이기 전에 시인이었던 백석의 예술가적 기질이 돌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싶으며, 동시에 이 이해를 위한 산물이 예술적으로 완미한 형식을 지니기 바랬다면, 이를 단순한 탐미적 기질의 산물로만 추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백석은 『만선일보』라는 매체 자체를 꺼려하였다. 가령 그는 『만선일보』에서 주관한 〈내선만 문화 좌담회〉(1940. 4. 5.)에 조선문인측 대표

15)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리스페스의 키를 설명하는 부분이 그러하다. 원문에 "five foot ten"을 백석은 "다섯자 일치"로 번역하였다. 비록 자(尺)나 척이 당시 사람의 키를 말할 때 통용되는 표현이지만, 백석은 foot(30.48cm)과 자(30.3cm)의 길이가 거의 유사하다는 점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까닭에 원문과 번역본에 있는 표현이 직관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로 참석하여 고작 단답형의 질의 하나만을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였다.[16] 그런데 돌연 그가 『만선일보』에 연말과 신년을 기하여 9회분이나 되는 소설을 번역하여 발표하였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표나 의지를 가지고 이 작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짐작게 한다. 그가 번역에서 보여준 '표현'에 대한 욕구는 결국 『만선일보』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특별한 메세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지의 소산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다면 백석이 굳이 「리스페스」를 발표하였다는 점은 이 작품이 지닌 주제나 문제의식이 백석의 관심을 끌었으며, 특히 다른 곳이 아닌 『만선일보』라는 매체에 실려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그가 번역한 작품의 '표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언급하지만 백석이 이 작품을 직역에 가깝게 번역하는 작업은 그 '표현'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3) 식민지 언어로 제국의 언어를 번역하기

비록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이것이 영미구축(英美拘縮)을 기치로 한 세계대전의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었지만, 당시 영국은 엄연히 '문명'의 발신자이자 원본으로 지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백석이 번역한 키플링은 이러한 영미문학에서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대영제국의 아시아 지배를 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나게 형상화한 작가였다.[17] 영문학을 전공한 백석이 영미문학에 대하여 얼마간의 동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하도 '왜 하필' 키플링을 번역하였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가 만주국에 대한 친제적 생각으로 아시아인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영국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번역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어쩌면 이러한 표면적 이유가 『만선일보』의

16) 백석은 『만선일보』에 그의 작품을 발표한 적이 없었다. 단지 여수 박팔양의 시집을 품평한 「슬픔과 진실」과 산문인 「조선인과 요설」을 『만선일보』에 게재하였을 뿐이다. 박팔양의 경우 당시 『만선일보』에 근무하였던 까닭에 백석이 그의 첫 시집에 대한 감상문을 써준 것이다. 또한 「조선인과 요설」의 경우 당시 만주에서 생활하는 조선인들에 대한 일종의 품위 문제를 두고 불평에 가깝게 쓴 글이다. 결국 위의 좌담회나 그가 신문에 발표한 산문 등에 드러나 태도를 보면 당시 만주국 내 유일한 지면이었던 『만선일보』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싶어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 권승혁, 앞의 글, 10면 참조.

검열 체제에서도 무사히 작품이 실린 이유가 될 수도 있다.—하지만 이러한 단순하기 짝이 없는 비판을 위해 미적으로 완미한 번역을 공들여 하였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게다가 백석이 번역한 「리스페스」를 보면 문제적 표현들이 한둘이 아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장만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리스페스」는 그 얼골이 희랍(希臘)본이엇다. 사람들이 그리기는 잘 해도 흔히 보지는 못하는 그런 얼굴의 하나이엇다. 그는 빗갈이 햇슥하고 상아빗치엇고 또 자기네 종족치고는 아조 훨신 키가 큰 편이엇고 그리고 또 그 눈이 아조 조핫다. (…) 제 나라 사람들도 그가 서양녀자가 되어벌이고 날마다 씻가신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엿다.
>
> ② 「리스페스」는 이 사나이가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나이라는 것을 목사에게 설명하엿다. 그러나 목사나 목사 부인은 그의 행동이 맛닷치 안흔 것을 아조 준절히 타일럿다. 「리스페스」는 가만히 듯고는 또 처음 말을 되푸리하엿다. 한 번 보고 곳 연애에 썰어지는 것과 가튼 문명하지 못한 동양적 본능을 씨서벌이는 데는 더욱더 예수교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①은 리스페스의 성장을 묘사한 장면이다. 여기서 리스페스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우선 얼굴이 서양인에 가까우며(희랍본) 다른 인도 아이들과 달리 상아빛의 피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키플링은 인종 간 외모의 우열을 바탕으로 리스페스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모의 우위로 말미암아, 소설의 말미에 늙고 초라한 노파로 변하는 리스페스의 모습이 더욱 인상적으로 남는 효과를 작가는 의도하였다. 두 번째로 리스페스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그녀가 "날마다 씻"기 때문이다. 문명과 야만의 구도로 상대방을 멸시할 때 가장 흔하게 동원되는 것이 '위생 담론'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작품에서도 키플링은 인도사람들이 날마다 씻지 않는 비위생적인 사람들이라는 관념으로 문명과 야만의 도식을 일반화하고 있다. 또한 '잘 씻으면 서양 여자가 되어버린다'는 식의 진술을 통하여, 위생 담론을 곧장 인도인의 무지 내지는 미개의 상태로 연결 짓고 있다. 이는 흰옷을 좋아하는 조선인들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으며, 색깔 있는 옷을

입자고 장려하였던 식민지 통치 시절의 상황과도 유비되는 측면이 있다.[18]

그런데 이러한 문명인(영국인)의 시선은 인도인 일반뿐만이 아니라, 외모와 자라온 환경이 다른 리스페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갈등이 시작된다. 그 갈등의 첫 번째 국면이 바로 ②에 인용한 서술이다. 리스페스는 골짜기에 떨어진 영국인 남성을 구해주고 그 남자에게 반해 결혼을 결심하는데, 목사 부부는 이러한 리스페스의 결심이 "문명치 못한 동양적 본능(uncivilised Eastern instincts)"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연애와 사랑이 근대의 전유물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서술에서 사랑은 문명인인 영국인만이 가능한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까닭에 리스페스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동물적인 "본능"으로 서술된다. "동양적 본능"이라는 말은 결국 혈통에 근거하여 필연적으로 아시아인은 이성적인 인간상과 멀리 떨어졌다는 표현의 다름 아닐 것이다.

또한 이 소설에서 목사 부부는 '모라비안 선교단'의 일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모라비안파는 독일을 근거지로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하며 비서구권 세계의 선교에 힘쓴 바 있다.[19] 즉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목사 부부는 기독교 경건주의자로서 이민족 혹은 이교도를 개종하는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다. 이러한 소설적 설정은 인도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목사 부부가 리스페스를 야만적인 이교도로 보고 인간적 배려를 하지 않는 모습으로 귀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이 작품은 시종일관 '종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적인 부분은 이 종족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소설의 인물과 같은 내부적 요소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외부 서술자의 표현을 통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에 종족의 문제는 소설의 차원이 아니라, 상

18) 특히 더러움의 문제는 위계나 위치의 문제를 의미한다. 김현경이 예시한 것처럼, 우리는 신발이 신발장에 있는 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식탁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한다. 즉 대상이 그것에 걸맞은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더러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인도인에 대한 위생 담론 자체가 지위의 문제라는 점과도 유비된다. 이러한 위생과 위치의 문제는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72-78면 참조.

19) 양현표,「모라비안 교회의 선교와 그 전략」,『신학지남』제85호, 신학지남사, 2018, 161-162면 참조.

식과 담론의 차원으로 읽힐 수 밖에 없다.

> ③ 근래가 미개한 인종인 탓에 「리스페스」는 애써서 자기의 감정을 숨기는 일이 업섯다. 그것이 이 영국사람을 재미잇게 하엿다. (…) 「아직 그 게집애가 어린 애가 아니유 그리구 난 그 애가 속으로 이교도나 아닌가구 생각하우」
>
> ④ 그리하야 목사 부인은 「리스페스」가 전보다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가 그 「미개하고 야비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안케 되는 것인가 보다고 생각하엿다. (…) 그러므로 이미 제 나라 사람인 어떤 녀자에게 결혼을 약속한 것도 것이려니와 그 우에 또 지체가 자기보다 높은 영국사람과 결혼하려고 「리스페스」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맛당치 안흔 일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기에 조을 째라고 생각하엿다.

③의 인용 부분은 바로 작가의 평소 생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부분에 해당한다. "근래(近來, Being a savage by birth, 타고나길)가 미개한 인종인 탓"으로 인하여 리스페스의 사랑은 눈요깃감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인데 여기에는 서술자와 작중 인물인 영국 남성의 생각이 교묘히 일치를 이룬다. 또한 자신이 평생을 키워왔음에도 목사 부부는 타고난 혈통을 근거로 리스페스가 평생 개종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목사 부인이 리스페스를 '이교도'로 의심하는 저 대화는 영국 남성과의 대화이다. 저 두 사람은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사이임에도 리스페스를 외부자로 밀어내고 내밀한 대화를 나눈다. 제국의 시민과 식민지인 사이에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저렇게 묘사된 것이다. 리스페스가 영국 남성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 역시 ④의 인용문처럼 "지체가 높은"(Englishman, who was of a superior clay) 신분을 좋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20]

결국 리스페스의 사랑은 실패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20) 백석은 "of superior clay"를 "지체 높은"으로 번역하였는데, 직역을 하자면, "더 나은 점토의 (영국인)"이 된다. 기독교에서 신이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는 전제가 깔리지만,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질료' 자체가 우수하다는 뜻이 될 것이다.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 '품성'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백석은 이를 맞바로 '신분'의 문제로 번역하였다. 즉 키플링은 인종주의적으로 표현한 것을 백석은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위계구도로 번역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사랑을 다룬 것이 아니라, 좁게 말하면 시민권, 혹은 보편적 차원의 성원권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국 남성이 리스페스를 떠나고 자신이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목사 부인을 통해 확인하는 순간 선연히 드러난다.

> ⑤「그럼 저한테 거짓말을 하섯서요. 아즈마님이나 그이가?」「리스페스」는 말햇다. 목사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아모 말이 업섯다.「리스페스」도 얼마 동안 잠작고 잇섯다. 그러고는 그는 집을 휙 나와서 골작이를 나려갓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업시 더러우나 그러나 코단추와 귓고리는 업는 산꼴처녀의 옷을 입고 돌아왓다. 그 머리는 산골부인들이 하는 대로 길게 따어느리고 검인(은) 실을 들이엇다.
> 「저는 우리게 사람들 잇는 데로 돌아가겟서요」 하고 그는 말을 이엇다.「당신은「리스페스」를 죽이셧서요 이제는 예전「써테이」의 딸만이 남앗서요—「퐈리(산골사람)」의 쌀이 그리고「탈카・째비」의 종이 당신네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야요. 당신네 영국사람들은」

위의 내용은 리스페스가 목사 부인과 영국 남성에게 기만당한 것을 알고 집을 나가는 장면이다. 그녀가 자신의 지위에 대한 명백하고도 뼈저린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의 '더러운 옷'을 입고 코에 점을 찍는 모습이 이채롭다. 특히 '리스페스를 죽였다'는 선언과 함께 그동안의 영국식 생활을 버리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기실 리스페스, 부족의 말로 '퐈리'는 '수줍음'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작중 리스페스의 성격은 수줍움을 탄다기 보다는 오히려 활달하고 적극적이다. 즉 리스페스의 영국식 삶 자체가 그녀의 이름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며, 그녀는 기만과 시련을 통해 이를 깨닫고 거짓 삶을 버린 것이다.

벤야민은 언어의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속성을 '이름'에서 찾았다. 이름이란 더 이상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고도 대상의 전존재를 다 드러내기 때문이다.[21]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보자면 "리스페스를 죽였다"는 말은 결국 자신이 식민지 선교단 가정에서 사람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즉 성원권

21)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번역자의 과제 외』, 도서출판 길, 2008, 85-86면 참조.

이 없다는 사실을 말한다. 또한 인간에 대한 정당한 '인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민족간의 불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백석이 「리스페스」를 번역한 진의를 알 수 있다. 당시 『만선일보』는 만주국에서 내세운 오족협화(五族協和)의 기만적 국가정책을 선전하던 친일기관지였다. 협화라고는 하였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각민족에 대한 지위, 가령 조선인에게는 철저하게 농민적 삶을 강요하였다는 점, 또한 임금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등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22] 흔히 만주국을 괴뢰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국가권력이 만주국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일본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까닭에 오족협화의 논리는 만주국의 이념이지만 그 실상이 기만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백석이 『만선일보』라는 매체를 꺼려하면서도 굳이 「리스페스」를 여기에 게재한 것은 이러한 협화정책을 선전하였던 만선일보사와 그 위로 이러한 정책을 펼친 만주국에 대한 불편을 드러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리스페스」가 1888년 식민지 인도의 수도 켈커타에서 출판되었으니, 작품에 나오는 민족간의 불화란 1940년 만주국의 수도 신경에 있었던 백석에게는 '오래된 미래'에 다름 아닌 셈이다. 그는 오족협화의 필연적 실패를 제국주의자였던 키플링의 소설로 예증한 것이다.

백석이 「리스페스」를 번역하는 일은 분명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작품 곳곳에 산재한 인도에 대한 멸시적 표현은 피지배민족으로 만주까지 흘러 들어온 조선인들의 처지를 강하게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키플링의 「리스페스」는 그 특유의 폭력적 서술에도 불구하고, 인도인 소녀 리스페스를 옹호한다. 즉 줄거리만 놓고 보면 이 작품은 성원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만적 세계에 대한 이의제기에 가깝다. 특히 키플링은 이 작품에서 다음과 같은 서술을 삽입하기도 하였다.

---

22) 임금의 경우 공장의 임노동자는 일본인에 비하여 조선인은 40퍼센트, 중국인은 30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 금액을 차등 지급받았다. 이러한 실상에 대해서는 야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 『키메라』, 소명출판, 2009, 266-271면 참조.

「이교도의 변덕스러운 마음이란 어쩌케 즘작하여 말할 수 업거든요」 하며 목사 부인은 말을 하엿다. 「글세 나는 「리스페스」가 언제나 속에는 밋는 마음이 업섯든 것이라고 미더요」

그러나 그가 난지 다섯 주인이라는 분별 잇는 나이로 영국 교회에 끌려온 것을 생각하면 목사 부인의 이 말은 당치 안는 것이다.

이교도는 어쩔 수 없이 변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목사 부인이 말하는 장면인데, 이 말을 키플링은 편집자적 논평으로 반박하고 있다. 즉 생후 5주에 교회로 와서 자신들에 의해 키워진 리스페스에 대하여 저렇게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평한 것이다. 작품을 관통하는 키플링의 서술은 민족적 차별에 근거하고 있지만, 저 문장으로 인하여 이 소설은 그러한 차별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것을 두고 구태어 "위대한 사실주의의 승리"를 말하지 않더라도, 식민지 인도에서 태어난 영국작가라는 키플링의 독특한 내력이 작중에 저렇게 균열 된 목소리로 묻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백석 역시 바로 이러한 소설적 진실을 발견하였던 바, 아마도 키플링의 작품을 번역하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다. 백석이 「리스페스」를 단 한 문장도 놓치지 않고 충실히 번역하였음에도 고의로 누락시킨 이 작품의 서두 부분에 대해 논해야 할 것이다. 백석이 삭제한 머리말은 다음과 같다.

이봐요, 당신들은 사랑을 내쫓았어요. 이 신들은 뭐예요? 당신들은 내게 말해주겠어요? 삼위일체(三位一體)? 일체삼위? 글세요. 나는 나의 신들에게 가겠어요. 내 신들은 당신들의 냉정한 그리스도와 뒤엉켜있는 삼위일체들보다 편안함을 줄거예요.

Look, you have cast out Love! What Gods are these You bid me please? The Three in One, the One in Three? Not so! To my own Gods I go. It may be they shall give me greater ease Than your cold Christ and tangled Trinities.

자신의 사랑을 무시한 영국인들과 원리주의적 신앙심에 대한 강한 반발이 저 머리말의 핵심이다. 그리고 저 머리말 뒤에, "개종자(改宗者, The Convert)"라는 부제를 달고 본격적으로 소설의 내용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러한 머리말을

백석은 일부러 누락시켰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테스』의 번역에서도 백석은 찬송이나 성경구절을 건너뛴 바 있다.[23] 그러므로 '삼위일체' 등의 교리를 말하는 위의 서술 역시 당시 조선인들이 크게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백석은 이를 삭제하였을 수 있다. 혹은 번역의 과정에서 단순 누락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머리말은 영국인 남성 작가가 인도 여성의 목소리를 재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재현이 소설의 전체적인 주제나 분위기와 잘 어울릴까? 이 소설의 결말 부분과 머리말을 비교하여 생각해보자.

> 「리스페스」는 나이가 퍽 만어서 세상을 떠낫다. 그는 영어를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아조 취하기나 하면 마음이 돌아서 그의 첫 번 정사(情事)를 이야기하기도 하엿다.
>
> 꼭 다 탄 넉마꾸레미가튼 이 눈시울이 쓰고 주름이 주룩주룩한 노파가 한째 「콧갈」 교회의 「리스페스」엿다고 알어보기는 어려웟다.

리스페스는 자신의 영국식 삶을 버리고, 여자를 매질하는 부족의 나무꾼과 결혼한다. '문명된 삶'을 버리고 야만의 세계로 돌아간 것이다. 그리고 저렇게 늙고 볼품없는 노파가 되어 "영어를 마음대로 하고"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리스페스의 저러한 행동은 '문명'에 대한 조소와 영국인들 사이에서의 삶이 기만적이었음을 암시한다. 그녀가 첫사랑을 소중히 생각하였다면 저렇게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을 리 만무하다. 까닭에 이 작품이 주는 여운은 상당히 강렬해진다. 리스페스는 젊은 시절 한순간 당한 무시에 대하여 전 생애를 걸고 반항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반항의 방식으로 오히려 문명을 버리고 야만을 택하는 전복적 방식을 취하였다. 무시와 차별이 있는 위선적 세계에서는 어떠한 진실된 삶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작품의 결론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결말을 놓고 보았을 때 앞의 머리말은 지나치게 '사랑'과 기독교 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이야기가 리스페스의 사랑에 의해 촉발된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인정의 결여에 있다. 그

23) 최동호, 앞의 글, 57-58면 참조.

러므로 위의 머리말은 자칫 이 이야기를 사랑에 실패한 소녀의 하소연으로 전락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은, 백석은 자신의 작품에서도 함부로 다른 이의 목소리를 재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흙 꽃 니는 이른 봄의 무연한 벌을
경편철도가 노새의 맘을 먹고 지나간다

멀리 바다가 뵈이는
가정거장도 없는 벌판에서
차는 머물고
젊은 새악시 둘이 나린다

—「광원」24)

어느 아츰 계집은
머리에 무거운 동이를 이고
손에 어린 것을 끌고
가펴러운 언덕길을
숨이 차서 올라갔다
나는 한종일 서러웠다.

—「절망」中25)

「광원」에 나오는 이른 봄은 농촌에서 가장 궁핍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기차에서 여자만 둘이 내려 어디론지 알 수 없는 곳을 향해간다. 백석은 이 장면을 단지 담담하게 묘사할 뿐이며 저간의 사정은 독자가 추측해야 한다. 이 미루어 짐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대상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다. 이는「절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동이를 이고 어린아이를 붙들고 "가펴로운" 언덕을 넘는 장면에서 이 여인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독자는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백석은 독자가 짐작을 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구하지, 여성의 목소리를 직접 재현하여 곤란을 직설적으로 호소하지 않는다. 이는「여승」이

24) 백석,「광원」,『사슴』, 1936.
25) 백석,「절망」,『삼천리문학』, 1938.

나 「팔원」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통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백석이 어떠한 목적으로 작품의 머리말을 배제시켰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방법이 없다. 다만 키플링은 인도 여성의 목소리를 자신의 관점에서 재현하려 한 반면, 백석은 이러한 재현을 삭제하였다. 키플링이 인도인에 대한 전형을 폭력적으로 서술하 듯, 이 소수자의 목소리에 대한 재현 또한 과감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백석의 번역도 백석의 작품과 닮은 점이 있다. 대상의 목소리를 재현할 수는 없고 그저 짐작만 가능하다는 백석의 시적 서술 방식은 재현을 누락시킨 번역과 상동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3. 결론—번역자로서의 백석과 번역의 윤리성

이상으로 백석이 번역한 「리스페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백석의 번역이 어떻게 윤리성을 획득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할까 한다. 벤야민은 특유의 언어관을 바탕으로 「번역자의 과제」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바벨탑 신화를 매개로 하여, 서로가 오해하고 반목할 수밖에 없는 인간 언어의 한계와, 파편의 형태로나마 각기 다른 언어가 번역의 과정을 통해 언어의 본래적 순수성을 지향할 수 있다는 그의 견해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26] 하지만 그가 번역을 '의무' 혹은 '과제'라고 말한 것은 번역이라는 행위가 지닌 특유의 윤리적 가능성을 말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27] 인간의 언어란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일개 역사적 산물이기에 진실을 다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벤야민은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좀 더 높은(순수한) 의미의 지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작은 나름의 중요한 위치를 지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작과 번역이 상하 종속이나 예속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상대적 위치에

26)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번역자의 과제」, 앞의 책, 137면. "그리하여 번역의 언어는 그 의미의 의도를 어떤 재현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그 의미의 의도가 스스로 전달하는 어떤 언어를 향한 조화와 보충으로서 그 언어 고유의 의도방식이 울려나오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언어란 벤야민이 상정한 순수 언어로서 결국 번역을 통해 인간의 언어가 화해와 조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27) 문광훈, 『가면들의 병기창』, 한길사, 2014, 909-912면 참조.

서 버성기면서 오해를 해소하는 부단한 과정이 이 윤리성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이는 키플링의 원작과 백석의 번역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키플링이 지닌 한계는 명백하다. 그는 인도인을 언급할 때 필연적으로 문명과 야만의 도식을 통해서 서술하였다. 작품에서 리스페스에 대한 명백한 옹호를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는 영국어가 지닌 역사적 폭력성을 딛고 난 뒤에야 비로서 발언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거의 직역에 가깝게 식민지인이었던 백석이 번역하는 일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동양인에 대한 무시와 멸시의 발언은 곧 만주국에서 백석 스스로가 경험하였을 자기동일성의 문제와 겹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백석은 의역을 하거나 각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해가 아닌 '표현'의 입장에 이 번역소설의 완미함을 추구하였다. 즉 소설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하여 애를 쓴 것이다. 공평무사한 마음, 자신이 속한 민족의 문제가 명백히 유비됨에도 객관성을 잃지 않고 담담하게 번역한 것이다.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는 것은 성숙한 마음의 자세이고 또한 열등감이 극복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점도 상기해두자.

까닭에 제국의 언어로 된 소설이 만주국이라는 공간에서 식민지 언어로 번역이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인간적 무시와 인정의 결여가 만연한 폭력적 세계는 키플링의 인도나 백석의 만주국에서나 동일한 것이었다. 다만 키플링은 그것을 제국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백석은 그 반대 방향인 식민지인의 입장에서 다시 비추어준 것이다. 그러므로 명백한 세계의 불화를 드러내기 위해 식민지인으로서 키플링의 문장을 번역하느라 백석이 지불하였을 괴로움은 이 번역물이 지닌 윤리성의 무게를 그대로 가늠케 한다.

▮ 백석 번역소설「리스페스」원문

『만선일보』1940년 12월 24일. 康德 七年, 昭和 十五年

리스페스 ……(上)[28]
럽드・키플링 作
白石

그는「히말라야」산중의 두멧사람「쏘누」와 그 마누라「짜데이」와의 딸이엇다. 어느 해는 그들의 옥수수 농사가 글러젓는데 또「콜」「갈」쪽「썻렛즈」골짝이 바로 우에 잇는 다못한 기인 아편 밧는 양귀비 꼿바테 곰이 두 마리나 나려서 밤을 나고 갓다. 이러케 되어 다음 철에는 그들은 예수교도가 되고 이리하야 그들은 그 어린 것을 세례를 밧기려고 전도회로 달여갓다.「콧갈」련대의 목사는 이것에게「엘리저버스」라는 세례이름을 주엇는데「리스페스」라는 것이 두멧 즉 인도말로「쏴리」의 발음인 것이다.

그 뒤에「콧갈」골에는 호렬자가 들어와서「쏘누」와「짜데이」를 모두 쓸어갓다. 그리하야「리스페스」는 바로 그때「콧갈」련대의 목사이든 사람의 안해에게 반쯤 하인으로 또 반쯤 동무로 되어바렷다. 이것은「모라비안」파의 선교단이 이 지방에 세력을 뒤엇스나 그러나「콧갈」이「북쪽 산골의 중진」이라는 칭호를 아조 일어버리기 전의 일이엇다.

기독교 덕분에「리스페스」가 깨엇는지 혹은 제 나라의 구신들로 해서도 엇던 일이 잇서도 그만쯤은 되엇슬는지 그것은 알 수 업스나 그러나 그는 퍽 아름답게 자라낫다. 산골처녀들이 아름답게 커갈 때에는 한 二백리 길 채 사나운 길을 머다하지 안코 보려올 것은 되는 것이다.「리스페스」는 그 얼골이 희랍(希臘)본이엇다. 사람들이 그리기는 잘 해도 흔히 보지는 못하는 그런 얼굴의 하나이엇다. 그는 빗갈이 햇슥하고 상아빗치엇고 또 자기네 종족치고는 아조 훨신 키가 큰 편이엇고 그리고 또 그 눈이 아조 조핫다.

---

28) 소설의 머리말이 빠져있음.

그래서 만일 그가 선교사들이 잘 입는 그 흉측스러운 갱사(更絲)옷만 아니 입엇다면 갑작이 그를 산 엽페서 맛날 때 아마 그를 산양하려 나가는 정말 「로마」의 「따이아나」 녀신으로 생각햇슬 것이라.

「리스페스」는 예수교를 조하하엿다. 그래서 그는 다 큰 녀자가 되엇을 때에도 산골 처녀들이 더러 그러듯 이 날아 것을 벌이지는 아안엇다. 제 나라 사람들도 그가 서양녀자가 되어벌이고 날마다 씻가신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엿다. 그리하야 목사 부인도 그를 어써케 하엿스면 조흘지 몰라 하엿다. 누구나 키가 구두 신고 다섯자 일치나 되는 헌듯한 녀신 갓튼 처녀에게 접시나 사발을 부시라고 말할 수는 업는 일이다. 그는 목사네 어린 아이들과 함께 놀고 주일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잇는 책은 모주리 다 읽고 그리하야 선녀 이야기에 잇는 공주 가티 점점 어여쌔갓다. 목사 부인의 말은 이 처녀는 「심라」에 가서 보모를 살거나 혹은 무슨 귀잔은 일 살어야만 하겟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남의 집 살기를 바라지 안핫다. 그는 그가 잇는 데서 퍽 행복되엇다.

려행하는 사람들—이 근년에는 그리 만치 안하지만—이 「콧갈」로 들어오는 때면 「리스페스」는 그들이 자기를 「심라」로나 혹은 어늬 알지 못하는 고장으로 달여갈까 무서워서 자기 방에 쏙 들어 잠겨서 나오지 안앗다.

그가 열일곱 살이 되고 몃 날이 지나간 어느 날 「리스페스」 애는 소풍하러 나갓다. 그는 한 칠팔 리 갓다가 마차 타고 돌아오는 그런 영국부인들의 하는 본대로 소풍한 것이 아니다. 그는 「콜갈」과 「남쿤다」 사이를 빙빙 한 필십리나 그 적은 사대 육신으로 ◆◆것이다. 이때에는 날이 아조 어두어서야 팔에 무슨 무거운 것을 안고 「콧갈」로 날여오는 그 험한 ◆◆◆◆◆팔에 채여 돌아왔다. 「리스페스」가 숨이 차서 짐을 안고 기진맥진해 들어왔을 때에 목사 부인은 응접실에서 조을고 잇엇다. 「리스페스」는 짐을 안락의자에 날여노코 그리고 간단히 이러케 말하엿다. 「이 이가 제 서방이애요. 「싸기」 길에서 보앗서요. 좀 다처서요 이 이를 구원해서 다 나흐면 아저씨더러 이 이와 저와 결혼하게 해달랄걸요.」

이것이 「리스페스」가 그 결혼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엇는데 목사 부인은 칵 무서워저서 그만 소리를 질르고 말엇다. 어써나 안락의자에

뉘인 사람은 우선 구원해야만 해야겟다. 그는 절믄 영국사람으로 머리가 썌까지 무슨 톱날 가튼 것에 비여젓섯다. 「리스페스」는 이 사람을 산 엽댕이에서 보고 날러온 것이라고 말하엿다. 이 사람은 숨결이 이상하고 그리고 정신을 찰이지 못하엿다.

『만선일보』 1940년 12월 25일. 康德 七年, 昭和 十五年

리스페스 ……(中)
럽드・키플링 作
白石

이 사람은 침대에 뉘여지고 그리고 약 료리를 좀 아는 목사 부인이 간호를 바덧다.

그리고 「리스페스」는 시중들 일이 잇서도 하고 문박게서 길달이거 잇섯디. 「리스페스」는 이 사나이가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나이라는 것을 목사에게 설명하엿다. 그러나 목사나 목사 부인은 그의 행동이 맛닷치 안흔 것을 아조 준절히 타일럿다. 「리스페스」는 가만히 듯고는 또 처음 말을 되푸리하엿다. 한 번 보고 곳 연애에 썰어지는 것과 가튼 문명하지 못한 동양적 본능을 씨서벌이는 데는 더욱더 예수교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리스페스」 자기가 숭배하는 사람을 차저서 저가 조흔대로 하는데 웨 잠작고 잇서야 할지 알 수 업섯다. 그는 다른 데로 나가라고 한 대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안엇다. 그는 이 영국사람이 다 낫기까지 그를 구원하려고 하엿다. 이것이 그의 계획이엇다. 한 보름 동안 대단치 안흔 열과 염증을 알코난 뒤 이 영국사람은 다시 몸이 완전하여져서 목사와 그 부인과 그리고 「리스페스」에게— 더욱이 「리스페스」에게—고맙게 군 것을 감사하엿다. 이 사람은 자기 말이 동양 려행자—「반도(半島) 및 동양기선회자」의 배가 아직 햇수가 어리고 그리고 아직 수효가 적엇을 이때에는 「세게만유자」라는 말을 하지 안엇다(-)[29]인데 「데이어리・던」으로부터 「심라」 산골

29) 누락 된 줄표.

에 잇는 풀과 나비를 채집하려 온 것이엇다. 이런 까닭에 「심라」에서는 누구 하나 이 사나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곤 업섯다. 이 사나이는 썩은 나무 둥걸 우에 도든 고비 하나를 썩그려고 몸을 쌔치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떠러진 것에 틀림업다고 그리고 그 꿀리들이 짐을 도적해가지고 달어난 것에 틀림업다고 생각하엿다. 그는 좀 더 튼튼해지면 「심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엿다. 이제는 더 산 오르기를 하고 십지 안헛다.

이 사나이는 조급히 갈려고 하지도 안코 천천히 힘을 도리키엇다. 「리스페스」는 목사한테서나 그 부인한테서나 충고밧는 것을 질색해 하엿다. 그래서 목사 부인은 영국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여 「리스페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말해 주엇다. 이 사나이는 한바탕 웃고 나서 이것은 야단스러운 일이나 소설가티 자미잇는 일인데 그러나 그에게는 본국에 약혼한 녀자가 잇스니 아모 일 업슬 것 가티 생각된다고 말하엿다. 으레 업시 이 사나이는 분별 잇게 몸을 가질 것이다. 그는 그러케 하엿다. 그러나 그가 아조 튼튼해져서 이곳을 떠나가게 되는 동안 「리스페스」와 함께 것고 그에게 달콤한 말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사랑하는 이름을 불으고 하는 것이 이 사나이에게는 퍽 즐거웟다. 이 사나이에게는 이러케 하는 것이 아모것도 아니엇스나 「리스페스」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엇다. 열나흘이 지나가는 동안 그는 퍽 행복되엇다. 그것은 그에게 사랑하는 사나이가 생긴 탓이엿다.

근래가 미개한 인종인 탓에 「리스페스」는 애써서 자기의 감정을 숨기는 일이 업섯다. 그것이 이 영국사람을 재미잇게 하엿다.

이 사나이가 떠나갈 때 「리스페스」는 아조 맥이 빠지고 퍽도 가이업시 「날쿤다」께까지 그를 딸어 산을 올라갓다. 목사 부인은 아조 조흔 예수교인이고 또 무엇이나 쓸데업는 일을 떠들어대거나 소문내는 것을 실허하여서—(하기는 목사 부인의 힘으로는 「리스페스」를 단속할 수 업섯다)—이 영국사람더러 다시 도라와서 그와 결혼한다고 「리스페스」에게 말을 하라고 하엿다. 「아직 그 게집애가 어린 애가 아니유 그리구 난 그 애가 속으로 이교도나 아닌가구 생각하우」하고 목사 부인은 말하엿다. 그리하야 산우까지 한 오십리길을 내내 사나이는 이 처녀의 허리를 껴안고 그에게 다시 도라와서 결혼한다는 말을 다

짐 두어 하엿다. 그러면 「니(리)스페스」는 다시금 사나이에게 기피 약속을 하게 하엿다. 그는 사나이가 「무티아니」 길을 잡어 가서 보이지 안케 될 때까지 「날쿤다」 산마루에서 그냥 울고 잇섯다.

그리고는 그는 눈물을 말리운 뒤 다시 「콜갈」로 돌아와서 목사 부인한테 이런 말을 하엿다.—「그이는 다시 돌아와서 저와 결혼한대요 그이는 저가 잡안 사람들한데 그런 말을 하러 갓서요」 그러면 목사 부인은 그를 얼려서 말하엿다. 「그의는 또 올걸」 두 달이 다 가자 「리스페스」는 조바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나히는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가버렷다는 말을 들엇다. 그는 지리학 초보를 익혓든 탓에 영국이 어데 잇는 것쯤은 알엇다. 그러나 물론 그는 산골 처녀인 탓에 바다가 엇던 것인지 생각할 수 업섯다. 집에는 세게지도 마추는 것이 잇섯다. 「리스페스」는 어린 아히 때에 이것을 가지고 놀은 것이엇다. 그는 다시 이것을 끌어내어서 저녁이면 마추어보며 스스로 하소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영국사람이 어데쯤 잇슬 것을 상상도 하여 보앗다. 그는 거리나 기선이 나름 생각하지 못하는 타에 그의 상상은 얼마큼 황당한 것이엇다. 그가 완전히 정확하였다해도 조금도 달을 것이 업섯다. 그 영국사람은 산골 처녀와 결혼하러 돌아올 것은 생각도 아니 하고 잇섯든 것이다. 이 사나이는 「에썸」에서 나비사양(냥)을 하는 때쯤 해서는 「리스페스」에 대한 것은 모다 이저버리엇든 것이다. 사나이는 뒷날 동양에 대해서 책을 하나 기술하엿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리스페스」의 이름은 나타나지 안엇다.

『만선일보』 1940년 12월 26일. 康德 七年, 昭和 十五年

리스페스 ……(下)

럽드・키플링 作

白石

석달도 다간 때 쯤 해서는 「(리)스페스」는 제 사랑하는 영국사람이 길에 오지 안나 하고 날마다 「남쿤다」까지 가곤 하엿다. 이것은 그에게 안심을 주엇다. 그리하야 목사 부인은 「리스페스」가 전보다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이

제는 그가 그 「미개하고 야비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안케 되는 것인가 보다고 생각하엿다. 얼마 아니 가서는 이러케 것는 걸음도 「리스페스」를 씨연히 하지 못하고 그의 성미는 아조 고약스럽게 되어 벌엿다. 목사 부인은 이때가 그에게 모든 사정을 바른 대로 다—즉 그 영국사람은 그의 마음을 들쓰지 안케 하기 위하야 사랑을 약속한 것이고 다른 뜻이 업섯다는 것과 그러므로 이미 제 나라 사람인 어떤 녀자에게 결혼을 약속한 것도 것이려니와 그 우에 또 지체가 자기보다 높은 영국사람 결혼하려고 「리스페스」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맛당치 안흔 일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기에 조을 때라고 생각하엿다. 그러나 「리스페스」는 그 사나이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햇고 또 목사 부인도 바로 자기 입으로 그 영국사람은 다시 돌아온다고 확실히 말한 것이 잇스니 이런 일이 잇슬 리가 천만 업다고 말하엿다.

「어써케 글세 그이나 아즈마님께서 하신 말슴이 거짓말이 될 수 잇겟서요?」 하고 「리스페스」는 물엇다.

「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네 마음을 산란치 안케 하려구한 핑계엿단다」 하고 목사 부인은 말햇다.

「그럼 저한테 거짓말을 하섯서요. 아즈마님이나 그이가?」 「리스페스」는 말햇다. 목사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아모 말이 업섯다. 「리스페스」도 얼마 동안 잠작고 잇섯다. 그러고는 그는 집을 휙 나와서 골작이를 나려갓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업시 더러우나 그러나 코단추와 귓고리는 업는 산꼴처녀의 옷을 입고 돌아왓다. 그 머리는 산골부인들이 하는 대로 길게 따어느리고 검인(은) 실을 들이엇다.

「저는 우리게 사람들 잇는 데로 돌아가겟서요」 하고 그는 말을 이엇다. 「당신은 「리스페스」를 죽이셧서요 이제는 예전 「쎠테이」의 딸만이 남앗서요— 「퐈리(산골사람)」의 쌀이 그리고 「탈카・째비」의 종이 당신네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야요. 당신네 영국사람들은」

「리스페스」가 그 어머니가 밋든 신(神)들께로 돌아간다는 말을 듯고 능큼 놀랏든 목사 부인이 놀라든 생각도 업서질 때에는 벌서 이 처녀는 이곳을 써나가벌이고 말엇다. 드리고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안엇다.

그는 마치 그가 벗어나갓든 인생의 밀려온 목슬 봉창이 나이려는 듯이 정신이 업시 덤벼 그 자기네 더러운 종족속으로 들어가 벌엿다. 그리고 얼마 아니 해서 그는 「파리」의 풍속대로 그를 싸리는 어떤 나무군과 결혼하엿다. 이리하야 그의 아름다움은 시들엇다

「이교도의 변덕스러운 마음이란 어써케 즘작하여 말할 수 업거든요」 하며 목사 부인은 말을 하엿다. 「글세 나는 「리스페스」가 언제나 속에는 밋는 마음이 업섯든 것이라고 미더요」

그러나 그가 난지 다섯 주인이라는 분별 잇는 나이로 영국 교회에 끌려온 것을 생각하면 목사 부인의 이 말은 당치 안는 것이다.

「리스페스」는 나이가 퍽 만어서 세상을 써낫다. 그는 영어를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아조 취하기나 하면 마음이 돌아서 그의 첫 번 정사(情事)를 이야기하기도 하엿다.

꼭 다 탄 넉마꾸레미가튼 이 눈시울이 싯고 주름이 주룩주룩한 노파가 한 때 「콧갈」 교회의 「리스페스」엿다고 알어보기는 어려웟다.

▮ 참고문헌

『만선일보』,『조광』.

Rudyard Kipling, *PLAIN TALES FROM THE HILLS*, Calcutta: Thacker, Spink and Co., 1888.

곽효환,「백석 기행 시편 연구」,『한국근대문학연구』제18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08, 129-167면.
권승혁,「T.S. 엘리엇은…제국주의자였다」,『T.S. 엘리엇 연구』제30권 1호, 한국T.S.엘리엇학회, 2020, 1-24면.
김현경,『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레이먼드 윌리엄스, 이현석 역,『시골과 도시』, 나남, 2013.
문광훈,『가면들의 병기창』, 한길사, 2014.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번역자의 과제 외』, 도서출판 길, 2008.
방민호,「백석의『테스』번역에 담긴 의미」, 토마스 하디, 백석 역,『테스』, 서정시학, 2013.
야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키메라』, 소명출판, 2009.
양현표,「모라비안 교회의 선교와 그 전략」,『신학지남』제85호, 신학지남사, 2018, 159-187면.
왕염려,「백석의 만주시편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10.
이동순・김문주・최동호 편,『백석 문학전집1(시)』, 서정시학, 2012.
최동호,「백석의 1940년『테스』번역본에 대한 비교 검토」,『한국학연구』제47호,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3, 11-35면.

【Abstract】

A study on Baekseok's novel translation—"Lispeth"

Ko, Jae-Bong*

Baekseok translated and published Rudyard Kipling's novel, "Lispeth", in the Manseon Ilbo for three days from December 24 to 26, 1940. At that time Baekseok lived in Manchuria, but he did not publish his works in Manchuria, but mainly in Choseon. Therefore, his translation of "Lispeth" published in Manchuria has a very important value in this respect.

"Lispeth" is about an Indian girl named Lispes is loved for an English man and abandoned by him. In this story, the English delude Lispeth. Therefore, this novel reveals how the British Empire discriminated against the colonists. Although Kipling's novel describes Indians as 'the barbaric people of the East,' it nevertheless criticizes imperialism.

In Manchukuo, where Baekseok lived, five ethnic groups insisted a slogan for living in peace. But this was an obvious falsehood. And the Manseon Ilbo was a newspaper propagating these fraudulent policies of Manchukuo. Hence, it was not accident that Baekseok had translated a novel that the English discriminates against the India.

It was not easy for a colony person to translate a English literary work. Because they have to endure the violent scheming of civilization and barbarism and translate painfully it. For he endured all this pain and translated it, Kipling's novel could be reinterpreted in minority languages (colonial languages). Due to the process of translating while enduring these pains, Baekseok's translated novel acquires ethics.

Keywords: Baekseok, Rudyard Kipling, Lispeth, translation, Manchukuo, Manseon Ilbo.

접수일: 2020.09.30. ‖ 심사일: 2020.10.07. ‖ 게재확정일: 2020.11.16.

* Ph.D.,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ha Univ.